

보도시점 (온라인,지면) 2025. 10. 9.(목) **즉시보도**

연휴 기간 내 주요 시스템 복구에 총력

- 행정안전부(장관 윤호중)는 10월 9일 오전 9시, 윤호중 장관 주재로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여 시스템 장애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제공 상황과 조속한 시스템 복구를 위한 방안 등을 논의했다.
- 정부는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도 시스템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.
 - 연휴 기간 중 ‘온나라 문서’와 ‘온메일’ 시스템이 복구되어 전자적 공문 작성, 문서 수발신, 업무용 전자우편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문서 업무가 정상화되었다.
 - 기업지원플러스,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, 인터넷 우체국(택배), 1365 기부포털, 농림어업총조사 포털 등 대국민 시스템도 계속해서 복구되고 있다.
- 중대본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통합운영관리시스템(nTOPS)의 데이터 복구를 완료함에 따라, 대전센터 내 시스템별 세부 구성과 위치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복구 계획 수립 및 실행에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.
 - nTOPS 시스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시스템 소관 부처의 확인을 거쳐, 이번 화재에 따른 장애시스템은 총 709개로 확정했다.
 - 참고로, nTOPS 시스템의 데이터 복구 전까지는 정확한 시스템 상세 정보를 알 수 없어서, 국정자원 관제시스템에 등록된 웹사이트 기준으로 647개 시스템을 장애시스템으로 관리한 바 있다.
 - 전체 장애시스템 목록이 확정됨에 따라 앞으로 복구 시스템도 이 목록에 따라 관리 및 발표하게 되며, 오늘 6시 기준으로 709개 시스템 중 193개 시스템이 복구되었다.

- 중대본 회의에서는 빠르고 효율적인 시스템 복구를 위해 전산실별 복구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.
- 화재로 소실된 시스템 중 대전센터에서 복구하는 것이 효율적인 시스템과 대구센터 이전이 효율적인 시스템을 분석하여, 복구 방식·우선순위 등 최적의 복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.
- 이를 위해 연휴기간 중에도 전산장비를 도입하는 등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.
- 또한, 중대본은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스템 장애 관련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 상황을 점검하고, 예산 확보 등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했다.
- 지금까지 부처 및 지자체는 시스템 우선 복구 및 현황 문의, 처리기간 연장·수수료 면제 등 총 82건을 중대본에 건의했으며, 이 중 38건은 처리를 완료했고, 미완료 44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·추진 중이다.
- 윤호중 장관은 “행정정보 시스템을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, 정부는 시스템별 복구 여건을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방식으로 복구를 추진하겠다”라면서,
- “명절 연휴도 반납하고 복구에 힘쓰고 계신 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, 과중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복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마련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디지털정부혁신실 디지털정부기획과	책임자	과 장	조원갑 (044-205-2702)
		담당자	사무관	위지성 (044-205-2716)